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멕시코

United Mexican States

2024년 3월 25일 | 조사역(G3) 이현경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1,964천 km ² 	인구 1.3억 명 (2023 ^e) 	정치체제 연방공화제 	대외정책 친서방 실리주의 
GDP 1.8조 달러 (2023 ^e) 	1인당GDP 13,804달러 (2023 ^e) 	통화단위 Peso(Ps) 	환율(US기준) 17.80 (2023) 

- 멕시코는 1.3억 명의 인구나 1,964천 km²(한반도의 19.6배)에 달하는 영토를 보유한 세계 12위 및 중남미 2위의 경제대국으로 원유, 은, 아연 등 다양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원유 수출 및 대미 교역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국제유가 변동과 미국의 경기 변화 및 대외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음.
- 2024년 6월로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현 AMLO 행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확대, 사회보장비 증액 등 포퓰리즘성 지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여론조사에서는 여당측 대선 후보의 승리 확률이 높고 현 행정부와 대내외 정책면에서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지 않아 차기 행정부에서도 정책 지속성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발효를 통해 최대 교역상대국인 미국과의 무역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멕시코-중국 간 무역 및 투자 관계 강화로 미국과의 양자 갈등 가능성도 존재함.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62. 1. 26 수교 (북한과는 1980. 9. 19)

주요협정 무역협정('69), 문화협정('69), 사증면제각서교환('79), 항공협정('89),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90), 이중과세방지협약('95), 범죄인인도조약('97), 외교관·관용사증면제협정('97), 관광협력('97), 투자증진·보호협정('02), 세관협력협정('06), 형사사법공조조약('07), 원자력의평화적이용협력협정('13)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21	2022	2023	주요품목
수출	11,290,248	12,654,212	12,221,993	철강판, 자동차부품,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수입	7,888,878	8,577,372	7,630,719	원유, 원동기및펌프, 기타금속광물

해외직접투자현황(누계, 2023년 말) 503건, 7,758,391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e
경제성장률	-0.3	-8.7	5.8	3.9	3.2
소비자물가상승률	3.6	3.4	5.7	7.9	5.5
재정수지/GDP	-2.3	-4.3	-3.8	-4.3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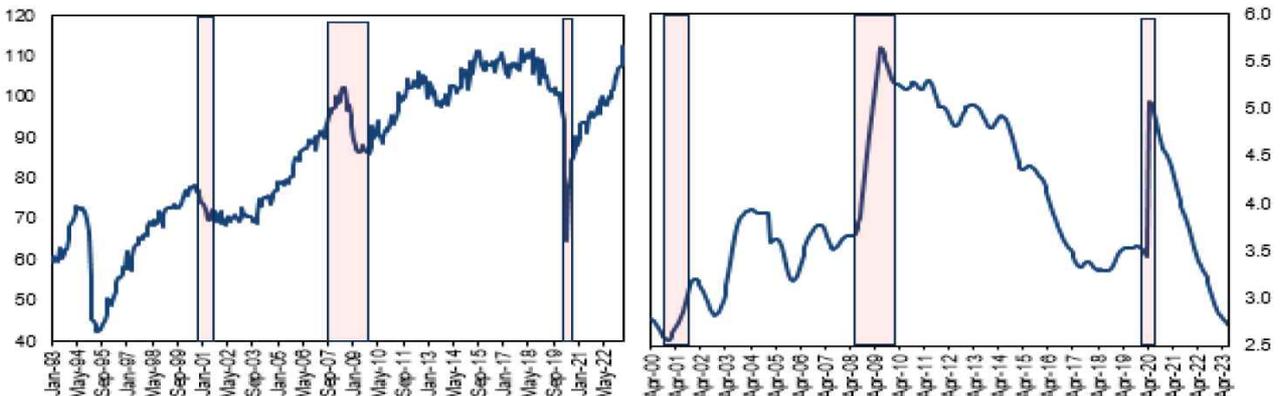
자료: IMF

2024년 세계 경제 및 미국 경제의 침체 예상으로 멕시코 경제성장세도 주춤할 전망

- 2023년 미국 경제가 고금리-고물가 지속의 상황에서도 소비 호조를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갔으며, 이에 힘입어 대미 의존도가 높은 멕시코 경제 또한 3% 중반대의 성장세를 보였음.
- 미국의 니어쇼어링 정책, USMCA* 효과, 미국과의 금리차 확대 등에 힘입어 멕시코는 북미 지역 제조업 투자의 최대 수혜자가 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미국 내수소비 증가에 따른 수출 증가, 국내소비 증가, 팬데믹 이후 관광수요 회복에 따른 서비스수입 증가, 해외근로자들의 송금액 증가 등의 호재로 멕시코 경제는 2022~23년 3%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갔음.
- * (USMCA)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 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으로 이전 NAFTA를 대체하여 2020년 발효
- 다만, 2024년은 국내외적 악재가 산재함에 따라 멕시코 경제도 2% 내외의 둔화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Fitch, S&P Global, EIU 등에 따르면 2024년 멕시코 경제에 대한 악재 요인으로는 미국을 포함한 세계경제 침체, 국내정치적 불안정성, 미국을 포함한 외부수요 감소, 관광수요 감소, 미국 Fed의 금리 인하에 따른 미국과의 금리차 축소 등이 언급되고 있음.
- 그럼에도 미국의 니어쇼어링 효과에 따른 세계 유수 기업들의 대 멕시코 투자는 2024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상기 악재의 영향을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그림 1] 미국 경기침체 시기 멕시코 경제 주요 지표 추이(적색 표시: 미국 경기침체 시기)

(좌: 멕시코 고정투자지수, 우: 멕시코 실업률, %)



자료: Macrobond, BMI

국내경제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 추세 속에서 멕시코 중앙은행의 긴축 통화정책 완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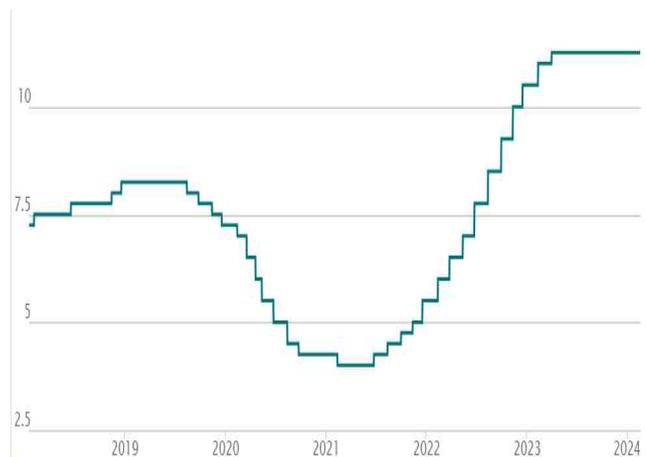
- 멕시코의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생산·물류 차질 등으로 2022년 7.9%까지 치솟으며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의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3±1%)를 크게 상회하였으나, Banxico의 강력한 긴축 통화정책 및 대내외적 경제 호조로 2023년 5.5%로 하락하였음.
- 대내적으로는 2022년 인플레이션 대응패키지(PACIC 3.0) 도입, 대외적으로는 국제유가 상승세 진정, 폐소화 가치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 등의 요인으로 월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22년 9월 8.7%에서 2023년 10월 4.3%까지 하락하며 인플레이션이 안정되었음.
- 다만, 근원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은 여전히 5.5%의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 이후 멕시코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의 수요 회복이 더딘 상황이 반영된 결과임.
-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22년 8월에 최근 20년 내 최고치인 8.7%를 기록하였고, 2023년 1월 7.9%로 물가 전망치를 웃돌자, Banxico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2021년부터 725bp씩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려 현재 11.25%를 유지하고 있음.
- Banxico는 목표 인플레이션 범위(3±1%)내로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현재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한다고 발표('23.12월)하였음.
- 그러나 Fitch 등 주요 국제기관들의 전망에 따르면, 2022년 정점을 찍은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있으며, 2024년 세계경제 침체 및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따라 서비스 부문 및 여타 핵심소비재의 가격 상승 압박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4년 1분기 이후 Banxico가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8년까지 점차 하락하여 7%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2] 멕시코의 목표 인플레이션 및 실질 인플레이션 추이(%)



자료: Macrobond, BMI

[그림 3] 멕시코 기준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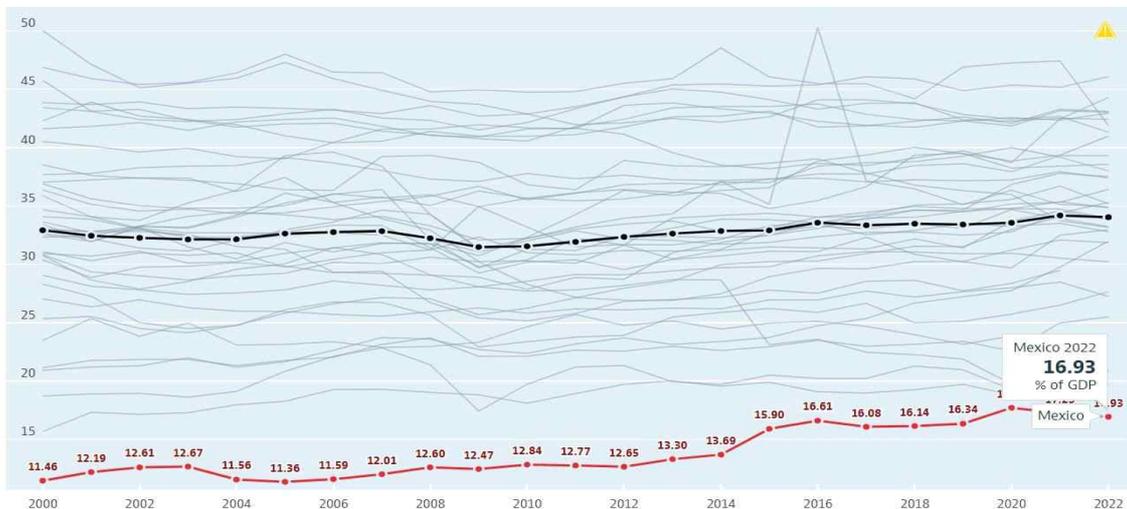
자료: 멕시코 중앙은행, Trading Economics

국내경제

금년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성 지출 증가로 재정적자 확대 전망

- 2018년 취임한 안드레아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MLO)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강력한 긴축 재정정책을 고수해왔으나,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대규모 인프라 공공지출 확대, 고령자 연금 지출 증액, 사회이전비용 증가 등 선심성 지출을 확대하고 있음.
- 특히 최근 국영 석유기업 PEMEX에 대한 비정기적 금융지원을 2024년 국가예산안에 포함시키는 등 멕시코 정부의 재정적자는 2023년 GDP 대비 3.9% 수준에서 2024년 4.9%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과거 30년 내 가장 큰 적자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됨.
- 미국의 니어쇼어링 효과로 인한 FDI 유입 증가, 해외노동자의 달러화 송금액 증가, 전 세계적 관광 회복에 따른 관광수입 증가 등으로 폐소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2020년 팬데믹 시기 51.7%에서 2023년 47.5%까지 감소한 점은 긍정적이거나, 2024년은 폐소화 평가절하 전망이 우세하여 관련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2023.9월 멕시코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서 GDP 대비 재정적자(4.9%)를 2025년까지 2.1% 수준으로 급격히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차기 유력 대선후보 모두 대외적으로는 선거공약상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뚜렷한 정책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재정적자폭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OECD에 따르면 이와 같은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전망에도 불구하고 2022년 멕시코 정부의 GDP 대비 세입비중은 16.9%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멕시코는 오랫동안 낮은 세수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멕시코 당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인 세제 개편과 관련하여 AMLO 행정부는 증세 및 세원 확충보다 세제 간소화 및 탈세 방지에 더욱 주력하고 있어,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23년 47.5%에서 '28년 52.6%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4] 2022년 멕시코 등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세입 비중(%)



자료: OECD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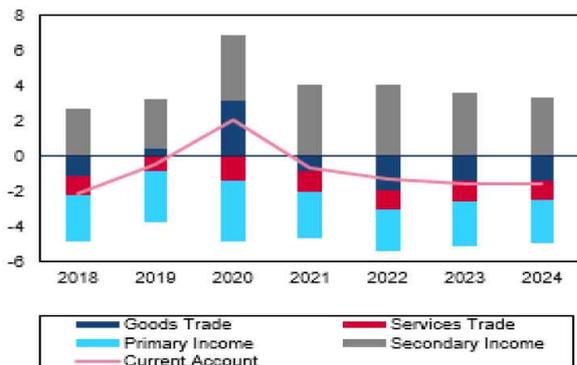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경상수지	-5,740	22,522	-8,342	-18,046	-15,395
경상수지/GDP	-0.4	2.0	-0.6	-1.2	-0.8
상품수지	5,168	34,151	-10,730	-27,078	-13,192
상품수출	460,940	417,323	495,275	578,223	631,155
상품수입	455,772	383,172	506,005	605,302	644,347
외환보유액	170,580	184,175	180,766	174,771	186,857
총외채	464,804	463,819	447,828	456,077	473,609
총외채잔액/GDP	35.6	41.4	34.1	31.1	26.1
D.S.R.	12.3	12.5	11.1	7.1	7.7

자료: IMF, EIU

2023년 제조업 수출 증가에 힘입어 경상수지가 개선되었고 FDI 투자처로의 경쟁력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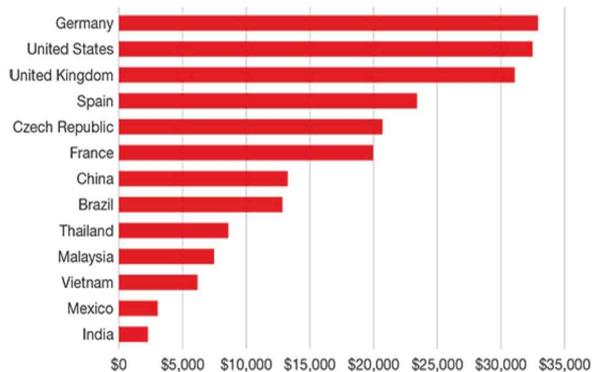
- 멕시코 경상수지 적자는 2022년 GDP 대비 -1.2%에서 2023년 -0.8%로 크게 개선되었음. 이는 상품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 수출이 증가하여 상품수지 적자가 전년 대비 50% 이상 대폭 감소한 결과로 추정됨.
- 최근 미국 IRA법 시행 및 니어쇼어링 경향 강화로 대 멕시코 FDI는 증가 추세를 지속해 왔으며 향후 수년 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는 멕시코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에서 최대 경쟁국인 중국의 임금이 급격히 상승한 반면 멕시코 최저임금은 경쟁국들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울러 공급망 리스크 증가, 미국과의 근접성 등으로 멕시코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그림 5] 멕시코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 추이(%)



자료: Fitch Solutions

[그림 6] 세계 주요국 생산인구 평균임금(달러/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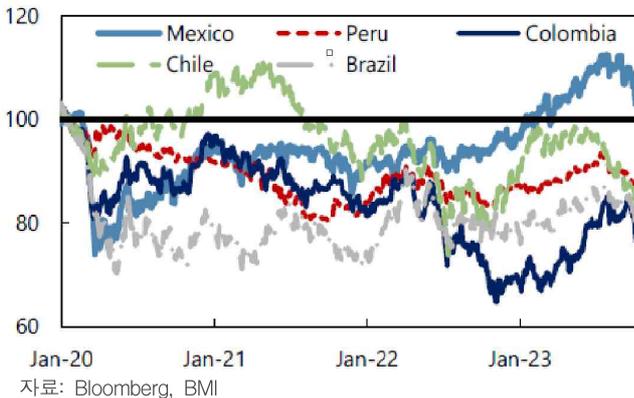
자료: The Reshoring Institute

대외거래

2024년 기준금리 인하로 슈퍼 페소 경향은 약화될 전망이나 FDI 증가세는 지속 전망

- 멕시코 페소화는 최근 몇 년간 브라질,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 주변국 화폐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미국의 니어쇼어링 정책 수혜로 인한 FDI 자금 확대, 해외 근로자 송금액 증가, 관광수입 증가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2023년에도 '슈퍼 페소'로 불리는 페소화 강세가 이어짐.
- 다만, 2024년 세계경기 침체와 더불어 인플레이션 안정에 따른 각국 금리 인하가 전망되는 가운데 멕시코도 조만간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외부수요 감소로 인한 수출 감소, 해외 근로자 송금액 감소 등으로 이어져 현재의 페소화 강세는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
- 금년 페소화 변동성의 주요 변수 중 하나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임. 페소화는 과거 2016년 공화당 트럼프 당선 시에는 크게 약세를 보였고, 2020년 민주당 바이든 당선 시에는 강세를 보였음. 따라서 금년 미 대선 전후로 환율 관련 상황 모니터링이 필요함.
- 멕시코의 FDI 유입은 2023년 GDP의 3.5%를 기록하여 최근 7년 내 최고치를 달성하였으며, 향후 수년간 미국의 니어쇼어링 경향 강화로 평균 3%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대 멕시코 FDI 유입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미국과의 근접성, USMCA 발효 혜택, 젊은층이 많은 인구 구조,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견고한 거시경제 펀더멘털 등이 꼽히고 있으나, 현 정부의 국영기업 편향적 정책, 에너지 민족주의 성향, 민간투자자에 대한 모순적 태도, 마약 등 치안 문제 악화 등이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됨.
- FDI 유입 지속으로 멕시코의 2023년 말 외환보유액 규모는 전년(1,748억 달러) 대비 약 6.9% 증가한 1,869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멕시코의 2023년 월평균수입액의 2.9개월분에 해당함.

[그림 7] 미 달러 대비 중남미 주요국의 환율 추이 (2020.01월=100)



[그림 8] 미 대선 전후 미 달러 대비 페소화 환율 추이 (0 : 미 대선일)



구조적취약성

미국에 과도하게 편중된 무역구조로 미국의 경제 사이클 및 대외정책 변화에 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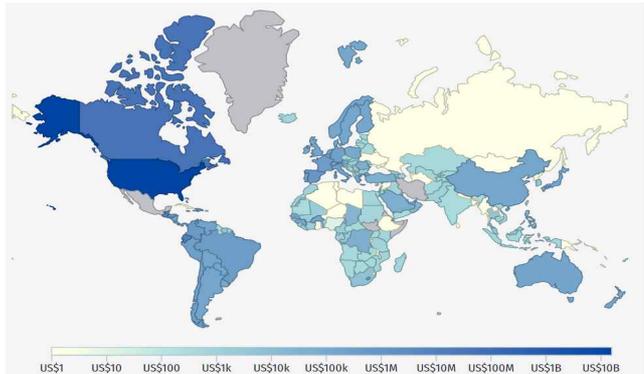
- 멕시코 경제는 2023년 기준 총수출의 83.4%, 총수입의 41.1%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 미국의 경제사이클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취약점을 안고 있음.
- 2023년 경제상황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기록한 것도 미국의 내수소비 증대로 인한 수출 증가, 미국 내 멕시코인들의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멕시코 앞 달러화 송금액 급증, 관광수요 증가 등의 미국발 요인이 컸다고 평가됨.
- 2024년은 미국 내수시장이 침체를 겪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EIU, Fitch 등은 멕시코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연이어 하향 조정하였음. 미국 내 멕시코인 근로자들의 근로소득 감소에 따른 송금액 감소, 멕시코로의 관광수요 감소 등이 전망되어 높은 대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무역다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저임금 및 미국에 대한 관세 혜택 등을 누리는 멕시코에 대한 FDI를 늘리고 있는 중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대부분 미국 수출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 무역다변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그림 11] 멕시코의 총수출 대비 국가별 비중(%)



자료: 멕시코 통계청(INEGI), 2023년 기준

[그림 12] 멕시코 해외송금액 국가별 분포



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

성장잠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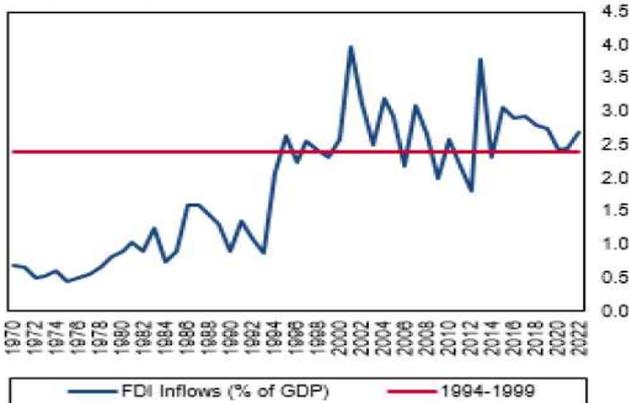
USMCA 발효 및 전 세계적 공급망 재편 경향으로 글로벌 공급망 핵심지로 부상

- 미-중 무역전쟁 및 팬데믹 이후의 공급망 리스크 대두로 전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가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음.
-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니어쇼어링 경향이 커지고 있고, 세계 최대 수요시장인 미국에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물류비 절감효과 및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견고한 거시경제 펀더멘탈, USMCA 발효로 인한 관세 인하 효과 등을 누리는 멕시코가 북미 지역의 최대 수혜자로 자리잡음.

성장잠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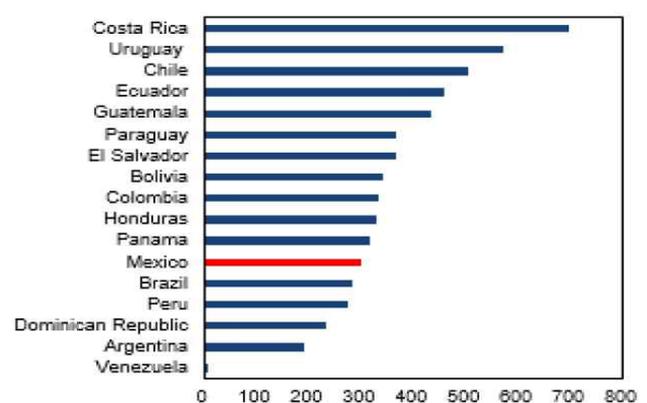
- 아울러 멕시코는 1.3억 명의 인구대국이자 생산가능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는 경제성장의 최적 인구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외국인투자에 대한 우대정책, 풍부한 천연자원, 전 세계 GDP의 60%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FTA의 관세 혜택 확보 등을 감안 시 멕시코로의 해외투자 유입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타 중남미 국가들의 FDI가 천연자원이나 인프라에 집중된 반면 멕시코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2023년에는 중국을 제치고 미국의 최대 수입국이 되는 등 향후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됨.

[그림 13] 멕시코 GDP 대비 FDI 유입 비중(%)



자료: Macrobond BMI

[그림 14] 2024년 중남미 주요국 최저임금(US\$/월)



자료: National sources, BMI

정책성과

인플레이션 대응 패키지(PACIC) 도입 후 재정적자 확대 및 기업 수익성 악화 직면

- AMLO 행정부는 필수 소비재의 가격 안정을 위해 2022.5월 '인플레이션 대응 패키지(PACIC)'를 통해 에너지요금 동결, 기본 식료품 수입관세 철폐, 통신·식품 기업의 주요 기본재 가격 동결, 기본재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총 16가지의 인플레이션 안정대책을 도입하였음. 원래 동 정책은 6개월 한시적 시행을 예고하였으나,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못하자 2023년 말까지 연장 실시하였음.
- 동 정책 시행으로 멕시코 정부는 2023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3.1% 내외를 목표하였으나, 실제 동 비율은 2023년 말 기준 3.9%까지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또한 이에 동참했던 민간 기업 및 에너지 공공기업 등은 가격 동결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되어 추가 연장 시 수익성의 대폭 악화가 예상되며, 정책 종결 시 물가 재상승으로 인한 대중 시위 발생의 위험도 우려됨.

정치안정

2024년 6월 예정된 대선 및 총선에서 여당 승리가 전망되나, 압도적 다수의 달성은 미지수

- 기성 정치 및 우파 정당 집권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로 2018년 선거에서 당시 야당 후보였던 ALMO 현 대통령이 집권하였음. 2024년 여론조사에서도 여전히 60%가 넘는 지지도를 보이고 있어 금년 6월 예정된 대선을 포함한 총선, 지방선거 등에서 여당 MORENA*의 집권 유지가 유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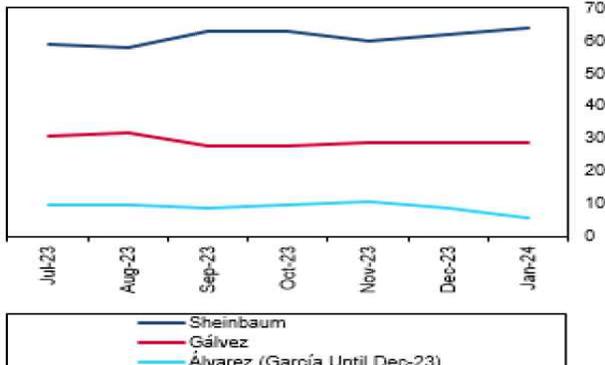
* (MORENA) Movimiento Regeneración Nacional로 현재 멕시코 의회 다수 집권당을 형성하고 있음.

- 3월에 선거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실시된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MORENA의 Claudia Sheinbaum*이 야당연합 후보로 나선 Zochitl Galvez의 2배 이상 지지율을 받고 있어 당선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Claudia Sheinbaum) 전 멕시코시티 시장이자 현 멕시코 여당 대선 후보

- 야당은 2018년 대선 패배 이후 자체적인 개혁 실패, 현 집권 정부 정책 및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 부재 등으로 대중의 지지 회복에 실패했다고 평가되고 있음.
- 2018년 ALMO 대통령 집권 이후 전폭적인 대중 지지에 힘입어 여당은 집권 초 5개 주에서 현재까지 총 32개 주 중 22개 주의 주지사를 확보하고 있음. 다만, 상대적으로 생활수준이 높은 북부 지역을 야당이 장악하고 있어 이 지역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금번 선거에서 여당의 도전 과제로 전망됨.
- 총선에서는 상·하원 모두 여당이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북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야당 지지율이 높아 헌법개정 등에 필요한 압도적 다수(supermajority)는 차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됨.
- ALMO 대통령은 현재까지 법원, 지방정부, 선거관리위원회 등 독립·자치조직에 대한 예산 삭감, 통·폐합 등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연방법원, 주 정부, 기업체, 언론 등과 상당한 갈등을 초래해왔음. 또한 국가의 주요 핵심기능을 군부 측에 부여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법치 약화, 투명성 저하, 부패 심화 등의 우려를 낳고 있음.
- EIU 등 보고서에 따르면, ALMO 대통령은 현 헌법 규정상 연임이 금지되어 차기 재선 출마가 어려우나 현재까지 현 대통령의 개인적 영향력이 여당 내에 막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향후 ALMO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정치권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또다른 정치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함.

[그림 15] 2024년 대선 지지도 여론조사(%)



자료: Macrobond, BMI

[그림 16] 멕시코 지역별 지지정당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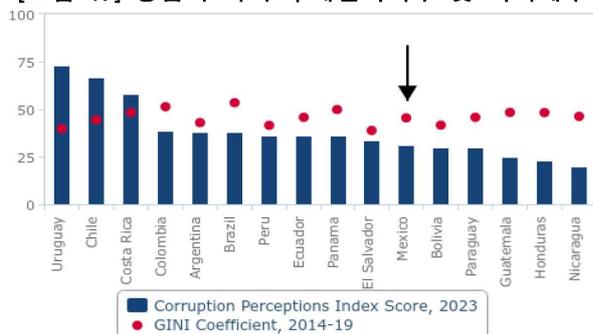
자료: National sources, BMI

사회안정

사회 전반적인 부패 만연 및 현 정부의 관련 정책 효과 미비로 사회불안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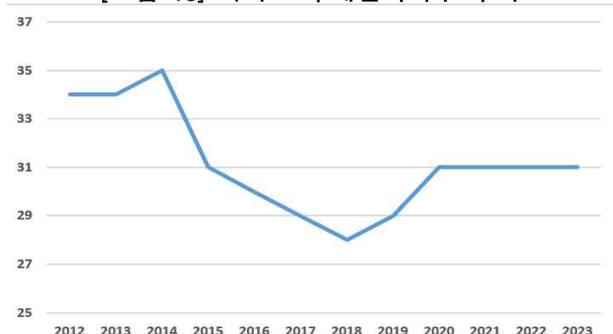
- 부패 이슈는 멕시코 사회 전반에 만연된 고질적인 문제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불안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2021년 멕시코 통계청(INEGI)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현 공식사회의 부패정도를 “빈번하다”로 대답하였으며, 21%는 행정 절차에서 실제 부패를 경험한 바 있다고 답하였음.
-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에서 멕시코는 매년 하위권(180개국 중 126위, 2023년 기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패 척결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ALMO 현 대통령 집권 이후에도 이 수치는 소폭 상승 후 4년째 변동이 없음.
- 국가 전반적인 부패와 뇌물수수 문제는 멕시코 내 마약 카르텔 및 조직범죄 등의 문제와 맞물리면서 사회 전체의 불안 초래 및 주변국과의 관계 악화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음.
- 대표적으로 2020년 멕시코 전직 대통령과 관련 고위급 관료, 국영기업 총수 등의 뇌물 수수 혐의로 멕시코의 부패 문제가 이슈화되었고, 멕시코 연방수사국 전 국장이자 지난 정권에서 “마약과의 전쟁” 기조하에 공공안전부 장관을 역임했던 가르시아 루나 전 장관이 2023년 2월 미국 연방법원에서 뇌물·위증·마약유통 등 5가지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으면서 이같은 악순환 문제가 더욱 부각되었음.
- 멕시코는 대형 마약 카르텔 및 관련 조직들의 주 근거지로 알려져 있으나, 멕시코 경찰을 비롯한 실무직부터 이를 지휘하는 고위급까지 범죄조직과 연관된 부패에 깊이 연루되고 있어 이민문제와 더불어 미국과의 관계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이전 행정부에서 2016년 공직자 책임 강화를 위한 국가반부패법을 통과시켰으나, 정권 교체 이후 현 정부의 동법 시행 의지 부족, 기존 관료집단에 대한 불신 등으로 부패 문제를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어 향후 단기간에 부패가 개선될 여지는 적을 것으로 전망됨.
- 다만, Fitch 등의 전망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의 2006년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 선포 이후 강경한 단속으로 인해 대규모 카르텔이 소규모의 지역화된 조직으로 분화하였고, 미국 내 마리화나 합법화로 마약조직의 마약사업 지속 유인이 더 적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실제 멕시코 정부의 강경한 단속 조치 지속으로 멕시코 내 카르텔 운영비용이 증가한 결과 카르텔이 활동 근거지를 주변국으로 이동시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치안이 안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음.

[그림 17] 중남미 국가 부패인식지수 및 지니계수



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 World Bank, BMI

[그림 18] 멕시코 부패인식지수 추이



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

사회안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는 개도국 중 상위권으로 평가

- Moody's(2024. 1월)는 ESG 요소가 멕시코의 정부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나,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일 수 있다고 보고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3등급(Moderately Negative)으로 평가하였음.
- **(환경)** 극심한 기후변화에 노출되어 여행수요 감소, 긴급 재난지원, 재해 대비 지출 등이 멕시코의 지방재정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나, 멕시코의 경제 규모 및 다양성을 고려하면 국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다만, 멕시코 정부와 국영 석유기업 PEMEX 간의 높은 상호 의존도로 인하여 중장기적으로 저탄소 전환에 따른 리스크가 상존하므로, 환경(Environmental)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 **(사회)** 멕시코는 보건 및 치안 관련 실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지난 10여 년간에 걸친 폭력범죄 증가로 일부 주들의 치안 위협이 국가 전체의 치안 불안으로 확대되면서 운영환경 부담이 가중되면서 멕시코 투자자들에게 추가적 경제비용이 발생하게 됨. 향후 고령인구 관련 추가 부담 감안 시, 안정적인 치안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회(Social) 영향은 상당히 부정적(4등급)으로 평가됨.
- **(지배구조)** 멕시코는 재정·통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해 왔으나, 최근 경제정책의 비일관성으로 인한 투자전망 악화 및 정부의 경제충격에 대한 대응능력 저하 등이 발생하였음. 아울러 멕시코 주요 지역의 부패 통제 실패 및 법치주의 후퇴 등으로 제도적 요소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지배구조(Governance)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국제관계

중국과 무역·투자 관련 양자관계 강화 추세

-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관세 정책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 등으로 미국으로의 수출에 타격을 입은 중국 기업들이 USMCA 일원인 멕시코를 통한 대미 우회수출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최근 중국-멕시코 간 무역 및 투자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선포하고 중국에 고율의 수입관세를 부과하였으며, 현 정부에서도 동일한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더하여 국가안보 우려를 근거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핵심 기술·부품의 대 중국 수출 금지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중국 기업들의 미국 수출이 제한되었음.
- 2024년 1월 미 무역대표부가 미 하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이 USMCA 등 미국의 FTA 관세 특혜를 적극 활용하여 우회수출을 시도한다고 보고 있음. 미국이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에 부과하는 관세는 2021년 기준 평균 2%에 불과(대 중국 수입관세율은 '23년 기준 평균 18%)하며, 한국, 일본, EU 등도 대미 수출을 위한 멕시코로의 니어쇼어링 경향이 강화되는 추세임.
- 실제 중국의 총수출에서 대 멕시코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0.5% 이하(30위)에서 2023년 2.5%(11위)로 5배 증가하였으며, 중국의 대 멕시코 FDI 또한 미·중 갈등이 본격화된 201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중국의 여타 남미 국가에 대한 투자가 인프라 건설 및 자원개발 목적인 반면, 대 멕시코 투자의 경우 제조업에 투자하여 대부분 미국 수출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고 추정됨. 2023년 멕시코가 미국의 수입 비중에서 20여 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1위로 등극한 것도 멕시코를 통한 중국의 우회수출 영향이 클 것이라고 평가됨.

역대 최대 규모의 불법이민자 급증으로 미국과의 갈등 증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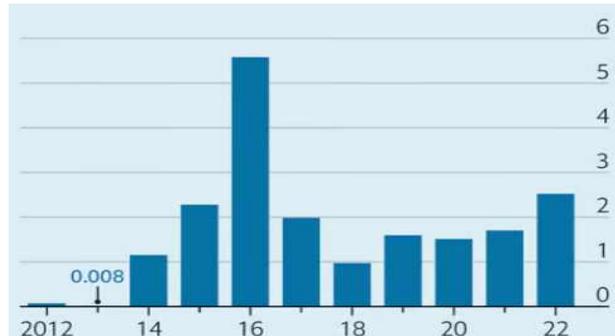
- 미국 남부 국경지역은 3,000km 넘게 멕시코와 맞닿아 있어 미국으로의 밀입국에 주요 통로가 되어 왔음. 2023년 12월 미국으로의 불법이민자 수는 24.5만 명을 넘은 것으로 추정되어 역대 최고 수준임.
- 불법이민자의 밀입국 문제가 심각한 것은 멕시코 북부가 마약 운반의 주요 통로로 활용되는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으나, 멕시코 정부의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약 카르텔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어 이와 관련한 갈등의 소지가 큼.

[그림 19] 중국 총수출 대비 대 멕시코 수출 비중(%)



자료: KITA Statistics

[그림 19] 중국의 대 멕시코 FDI 규모*(십억 달러)



자료: RED ALC-CHINA(홍콩 포함)

외채상환태도

증장기 위주의 외채구조와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 2023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의 멕시코에 대한 여신잔액 166.2억 달러(단기 83.2억 달러, 중장기 83.0억 달러) 중 연체액은 2.5억 달러로 1.5%에 불과하며, 2023년 말 기준 외채의 78.7%가 중장기 외채로 안정적인 외채구조를 지니고 있음.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3등급 (2023.10)	3등급 (2022.10)
Moody's	Baa2 (2024.01)	Baa2 (2023.07)
Fitch	BBB- (2024.03)	BBB- (2023.06)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은 안정적 유동성 확보,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등을 고려하여 멕시코의 기존 국가신용등급 유지 중

- 멕시코는 2009년 이후 OECD 3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국제신용평가사는 인플레이션 안정화, 탄탄한 성장세, 안정적인 거시경제 펀더멘탈 등을 근거로 2023년에도 멕시코의 신용등급을 2022년 등급 그대로 유지함.
- Moody's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니어쇼어링 경향에 의한 대규모의 다양한 자금 유입 등으로 멕시코의 경제성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았으나, 동시에 국영기업 PEMEX에 대한 재정지원 부담 존재, 최근 정부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 제도적 안정성 부족 등이 여전히 장애물인 것으로 판단함.
- Fitch는 견고한 거시정책 안정성, 충분한 유동성 확보, GDP 대비 정부부채 안정성 등을 들어 멕시코에 대해 기존의 평가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나, 2024년 선거를 앞두고 확대되는 재정지출과 이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 가능성 증가, PEMEX에 대한 재정지원 부담 등을 우려되는 점으로 지적함.

- 2023년 멕시코 경제는 글로벌 긴축 기조, 공급망 위기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와중에도 미국 니어쇼어링 정책에 따른 FDI 유입 증가, 대외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3.9%)과 비슷한 3.2% 성장을 기록함.
- 2024년에는 주요 교역국인 미국의 경제성장 둔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트럼프 당선 시 멕시코에 대한 강경책 실시 전망 등의 악재가 예상되며, 2024년 예정된 멕시코 대선을 앞둔 정부의 포퓰리즘성 지출 증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 부문의 세입 감소 등이 재정건전성 확보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EIU, Fitch, S&P Global 등은 멕시코의 경제성장률을 향후 2%대로 하향 전망함.
- 2018년 12월 출범한 AMLO 행정부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긴축재정을 통한 재정여력 확보, 사회적 측면에서는 부패·치안 문제 개선을 표방하였으나, 국영기업 앞 과도한 재정 투입, 치안환경 악화 등으로 정책성과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러나 현 AMLO 대통령에 대한 강한 우호적 여론을 감안시 현 여당인 MORENA가 계속 집권할 것으로 전망됨.
- AMLO 행정부는 바이든 미 행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USMCA 발효에 따른 경제적·외교적 성과를 실현하고자 할 것이나, 최근 멕시코-중국 간 무역 및 투자 관계가 강화됨에 따라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미국과의 갈등 소지가 있음.